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日)
本紙夕刊十二面

社說
佛國의金本位停止
金本位無效實上離脫

一

昭和六年(一九三一年)九月 英國金本位離脫을 契機로 展開된 國際爲替戰은 日本、米國等 世界主要國을 金本位로부터 離脫케 하엿는데 이사이에 홀로 佛國은 金本位國으로서 白耳義、和蘭、瑞西等 法貨불럭을 引率하고 孤壘를 固守하면서 爾來五六年間 몃번이나 法貨의 危機를 傳하엿스나 金本位에서 容易히 離脫할수업는 國內事情으로 擧國一致 法貨擁護、金本位維持에 努力하야 今日에 至하엿는바、今年에 入하야 對內對外的 政治經濟의不安增大는 資本의 海外逃避、國內退藏이 熾烈化하게되어 年始以來 百十億의 金을 이미 喪失하야 未曾有의 危機에 當面하게되엇다 블룸內閣은 法貨擁護의 最後的努力으로 議會에 法貨擁護法案을 提出하야 資本의 海外逃避와 法貨投機에 一段의 制限을 加하고 佛國銀行의 割引率을 大幅引上하야 資金流出防止에 努力하엿스나 이것도 水泡로 마치내 金本位維持가 不可能한 最後的場面에 이르게되어 佛國政府는 英米兩國政府와 通貨安定協定을締結하야 法貨再調整案을 議會에 提出하야 通貨安定을 圖謀하게되엇다는 約束下에 英米의 支持를 어더 再昨 二十六日에 三割內外의平價切下를 斷行하는 同時에 金兌換停止를 宣言하게되엇다。이에 金本位의 最後牙城인 佛國이 金本位로부터 離脫하게되어 金本位블럭은 마친내 崩壞되고 世界의 金本位國은 絶影狀態가 되어버렷다。

二

回顧하건대 世界恐慌勃發의 當初에는 恐慌의世界속에서 佛國은 홀로 好景氣를 謳歌하엿다 이는 一九二六年의 果敢한 平價切下가 主要原因이엇는데 그後 英國을爲始하야 日米等諸國이 金本位를 放棄하게되어 此等各國의 爲替의急速한 低落으로 佛國이 從來에 享受한 利益은 無에 歸하고 外國市場의 競爭戰에잇서서 法貨는 도로혀 壓迫을 맛게되엇다。그러므로 金本位維持爲替高에 基한 輸出貿易上의 不利를 物價의低落、生產費切下에 依하야 打開할수밧게업는터인즉 外國爲替의 低落은 이努力을 虛無에 歸하게할뿐아니라 國內에잇서서는 積極的 데플레를 施行할수밧게업시되어 國內의 生產費切下는 商品價格 賃金引下를 不得已하게되어 生產活動을 萎縮하고 國際收支惡化防止를爲하야 極端한 輸入制限을 實行하지안을수업스니 經濟活動은 萎縮하게되고 歲入不足은 增加할뿐이다。歲入不足은 年年增加하야 政府負債에 對한 利子가全支出總額의 四三%에 達하게되는狀態로서는 赤字財政도 金融市場을 壓迫치안을수업다。이것이 英米諸國은 物價騰貴、生產指數增加、失業者減少를 보이고잇는데 反하야 佛國은 物價下落、生產減、失業者增加를 보이고잇는 佛國經濟의 特異狀이엇다。

三

去年의 佛國政界가 極度의 動搖를 보인것은 勿論 國際政局의 不安도 不安이나 이財政經濟問題로 因함이엇든 프랑당內閣이 財政經濟整理案에 敗하고 總辭職한後 라발內閣成立까지의 經歷으로도 알수잇거니와 佛國經濟가 食料品、重工業原料의 自作自給 可能한 大한 金準備와 金利衣食者階級의 多數인것과 國民의 法貨에 對한 絶對的信賴가 잇는것等의 點으로 金本位維持가 可能하리라고 漠然히 樂觀되지만 박그로 獨逸의 로카르노破棄、안으로 人民戰線進出、總罷業勢等 國內外의 政治的不安은 資本의 海外逃避、國內退藏을 不可避的으로 招致하엿고、또는 左翼人民戰線에 立脚한 블룸內閣으로 하여금 過去四年間의 데플레政策을 抛棄케하엿스니、그것은 一은 社會政策的立法에 因함이오 二는 對外的情勢로 因한 軍備擴張等의 金融膨脹으로 말미암음이다。이에 데플레로서만 維持할수잇는 金本位維持가 인플레로 因한 物價高、이로因한 貿易逆調、國際收支惡化의 一路를 밟게되고 또 인플레와 資本逃避가 如何히 하느냐하는 問題가 擡頭하게되어 마친내 佛國經濟의 共同은 그極에 達하야 외갓 犧牲을 다하야 死守해온 金本位를 抛棄치안흘수업게되엇든것이다。

이것이 佛國의 國內政界에 끈치고 널리 世界經濟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한것만큼 今後의 推移에는 重大한 關心을 가지게하거니와 英米佛三國間에 成立되엇다는 通貨安定協定의內容이 如何한것이며、今後 얼마만한 効果를 나타낼지는 알수업스나 法貨의 金本位離脫과 함께 世界通貨의 動搖는 激甚한바가 잇슬것이 豫想되므로 英米佛의 期待와가티 安定될는지는 疑問이니 弗貨의 再切下與否問題와함께 國際爲替市場의 今後의 多端한 波瀾을 보일것이다 또 남은 和蘭、瑞西等 金本位國의 今後의 動向도 特히 注目되는바이다。

國論不統一로보고 中國側態度硬化
自衛權行使를單純한恐喝視
日中國交調整은絶望

【南京二十六日發同盟】日中交涉을 打開키爲한 最高首腦者蔣介石氏의 歸京을 求할使命을 띄고廣東으로부터 歸來直時 外交部에서 張群部長以下外交首腦部와 蔣介石氏의 意見을 基礎로 對日方針에對하야 協議를 거듭하얏는데 確實한 中國側의 情報에 依하면 右三氏의 廣東行의 使命은

一、川越 張交涉의 經過報告
二、右交涉에對한 蔣介石氏의意見聽取
一、上海事件後 急激히 緊迫한 諸情勢의 報告
四、蔣介石氏의 即時歸京要求

의四項目이엇는데 右에對한 蔣介石氏의 態度는

一、川越 張群의 國交調整交涉에서 川越大使로부터 提出된 要求는 日本이 北中衝輸問題 冀東問題 滿境問題等에서 中國側의 要求를 認定치안는限 各項目에 亘하야 全面的으로 이를 拒絕하고
二、現下의 緊迫한 諸情勢에서 日本이 急激한 軍事行動에 訴할 意思업는것을 有田外相이 英國側에 言明하고 잇슴으로 日本側을 相對로하야 時日의 經過와 交涉치안코 放置하야 平靜으로 回復할기 다리며
三、以上의 點으로보아도 蔣介石氏自身의 出馬는 不必要하야 川越大使와의 折衝은 從來와가티 張部長으로 行케하고 孔祥熙氏로하야 이를 援助케하면 足하다

라는데잇서서 日本의 寬容한 態度를 國論不統一의 結果라고 誤認하야 中國側의 態度는 俄然硬化하야 日本의 軍事的自衛權行動도 單純한 恐喝이라고보나 日本軍의 行動及 政府의 深甚한 心慮를 愚弄하는 態度로 나오는것이 明白하다 따라서 今後續行되는 川越大使와 中國側과의 折衝은 何等그成果를 期待치못할 狀態에 잇서서 이國民政府의 正體暴露에 依하야 國交調整은 말할것도업고 日中關係는 益益惡化、緊迫을加한 重大形勢로되엇다

回答如何에따러 斷乎交涉中止
—川越大使撤歸를決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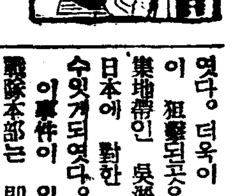
【上海廿六日發同盟】中國側은 廣東特使의 齎來한 蔣介石氏의意見에基하야 日中交涉今後의 方針을 協議하얏는데 右結果 一兩日中으로 日本側에 對하야何等의 意思表示를 할것으로보이는데 그回答如何로는 川越大使와中國側과의 第四次 折衝이續行될것으로 傳하고 잇는대 萬若中國側의 態度가硬化하야 不誠意한態度로써 臨하면 川越大使는 旣定方針에 依하야 斷乎交涉을 그만두고 上海로 撤退키로決意를하얏다

天皇陛下釧路御向發

【旭川電話同盟】旭川市의 御駐蹕第一夜를 지나옵신 今二十七日 天皇陛下께옵서는 이날北洋의開港場釧路市에 向하옵서다 午前八時行在所御出門、旭川驛御着、同八時十八分御發車、北海道各地의御巡幸을 御天覽하옵시면서 午後四時二十八分釧路驛御着 行在所釧路市男子高等小學校에 御着後同四時十五分行在所御出門 自動車略式鹵簿로 市設그라운드에 御行幸하사 道民의 奉迎을 受하옵시고 同五時十四分行在所에 御還幸하옵섯다

和蘭도金輸出禁止

【암스텔단二十七日發同盟】和蘭政府는 佛蘭西의 平價切下의應急對策을 二十六日夜半 金의輸出禁止를 發令하얏다



上海서又復日本陸戰隊水兵狙擊

成都事件、北海事件이 아직 解決되지 못하야 日中關係가 일촉이 업는 緊迫狀態에 達한 이때에 去廿三日 又復 上海에서 軍艦出雲의 陸戰隊 水兵三名이 中國人에게 피스톨로 狙擊되야 一名은 即死하고 他의 二名은 負傷하엿다。이것은 中國의 全般的反日傾向이 個人的테로리즘으로 發現된것으로써 依然 當局과 民間에 一大쇽크를 일으키엿다。더욱이 前記三名의 水兵이 狙擊되든곳은 日本居留民의 密集地帶인 吳淞路인만큼 殘虐한 日本에 對한 挑戰的行爲로 볼수잇게되엿다。

이事件이 일어나자 上海의 陸戰隊本部는 即時 日本居留民密集地帶인 虹口一帶에 戰時戒嚴令을 내리우고 事實上 蘇州河以北을 保障占領하야 居留民保護에 當하엿고 近藤上海特別陸戰隊司令官의 聲明書로써 重大聲明을 發하야 陸戰隊獨自의 立場으로써 日本人密集地域附近은 武力으로써 警備의 萬全을期할것을明示하엿다。同時에 이報告에 對한 海軍省과 外務省은 緊急會議를 開催하야 居留民保護를爲하야는 實力으로 必要에 應하야는 自由手段을 取할것을 訓令하는同時에 南京에잇는 川越大使는 蔣介石氏와 直接으로 責任잇는交涉할것을 强調로하얏는대 豫定의 交涉은 中止함에이르럿다

國際聯盟總會開會

第十七回國際聯盟總會는 二十一日에 理事會議長智利代表뷔크냐氏의 司會로 開會되엿는데 伊太利代表는 出席하지안코、에디오피아代表만 三名이 出席한것은 異樣의感을주엇다。이總會에잇서 가장注目할것은 말할것도업시 聯盟의 에디오피아代表를 認定하지아니하여야 出席하게다는 示威的態度로 일르러 어 規約의 當한 權利로 代表資格을 主張하는 에디오피아代表를 否認할것이가 또는 認定할것이가하는 點이엿는데 九國代表로써 任命된 代表資格審查會는 드디여 蘇聯代表 리트비노프氏의 純理論과小國側의 純理論에追隨하야 代表資格을 認定하야 二十三日의 總會는드디어 審查委員會에서 査定하야 한에디오피아代表資格을 三十九票對四票의 多數로서 承認하얏다 이結果、에디오피아代表는確認되고 伊太利는 聯盟脫退를 斷行할氣勢가 濃厚케되엿다

佛國의金本位放棄

金本位의 最後의堡壘인佛國도 드디여、百億프랑에가가운 金의海外逃避에 견될수업서서 할수업시 二十六日로써 平價切下(切下率은三割五分五厘乃至三割四分二厘五毛)를斷行함을 發表하엿다 이結果全世界에는事實上金本位國은 絶影되엿이다

佛、金輸出禁止宣言 平價切下對策決定
瑞西프랑도平價切下斷行을公式으로發表

【巴里廿六日發同盟】佛蘭西政府는 法貨의 平價切下決定에 伴하야 廿六日中으로 正式金輸出禁止를 宣言할것으로 豫想되나

【巴里二十六日發同盟】佛蘭西政府는 二十六日午前 首相官邸에서 부룸首相司會下에 緊急閣議를 開催하야 法貨의 平價切下에 對應하는 諸方策을 如左히決定하엿다

一、金의回收
二、九月二十六日現在의 外國通貨의 各種投機取引에 關한 申告를 强制的으로 行케할
三、生活의 變動에 伴하야 俸給을 調整할
四、公債의 小額所有者及 一九二六年의 政府公債所有者에對한救濟策
五、出征軍人의 恩給支拂停止에 關한 라발內閣의 緊急令廢止
六、地方團體의 負債整理에 關한 緊急令
七、家賃의 十四센트引下廢止
八、輸入食料品에關한 課稅의廢止

以上의 諸方策中 若干은 一九三七年度豫算案中에 包含될것이다 그리고 關稅率은 緊急令으로써 改訂하기로 決定하얏나

【베룬二十六日發同盟】瑞西聯邦政府는 二十六日午前緊急國務會議를 열고 佛蘭西의 平價切下對策을 協議한結果 瑞西도 英米、佛三國의 通貨安定協定에 準據決定하야 其旨를 公式으로 發表하얏다

伊리라貨도追隨할듯

【羅馬二十六日發同盟】伊太利政府當局은 目下佛蘭西의 平價切下를 愼重檢討中인데 瑞西도平價切下를 決定한結果 伊太利도 追隨하야 리라貨의 平價切下를 斷行할수밧게업다고 觀測된다

英米佛三國에 白政府覺書
通貨安定協定을支持

【부랏셀二十六日發同盟】白耳義政府는 二十六日英米佛三國政府에 長文의 覺書를 發送하야 白耳義는 三國通貨安定協定을完全히 支持하는것 但右는 白耳義貨의 地位에 影響을 與치안는다는 旨를 言明하얏다

英政府서提案한 歐洲新平和案
伊難色으로實現困難

【倫敦二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去十八日獨佛伊白各政府에 對하야 覺書를發送하야 로카르노體制에代位할新條約案을 提示하야 로카르노會議開催에百方으로努力을 集中하고잇는데 獨逸이英國案에 難色을示하고 또伊太利政府도依然反英的態度를繼續하고잇슴으로 本年中에 會議開催의希望을드듸여 放棄케되는模樣이다 英國政府部內의 親伊論者인호ー아海相도 最近地中海方面을 旅行하고 伊太利空軍및海軍의 膨脹이 地中海에 在한英國의 地位를 더욱 脅威하고잇는 事實을確認하고 再次報告하고 英國政府는 今後外交方針의 基調를 歐洲의 新平和體制確立으로부터 英國의 海外權益確保에 轉換할것이라 한다

西大統領亡命說
全然히虛構라고
西外相否定

【쥬네브二十六日發同盟】아자니아大統領은 亡命의決意를하고 去卄三日 政府에 對하야 巡洋艦에 타겟다는것을 要請하얏다고 傳하는데 聯盟出席中의 西班牙外相델바요氏는 二十六日 右報道를 否定하고 아자니아大統領이 首都를退去한다는 報道는全혀 虛構로 大統領은 못까지 마드리ー드에 잇스며 共和國을 擁護할決心이다라고 말하얏다

蘇聯、西政府救援隊
模擬戰을施行

【莫斯科二十四日發同盟】蘇聯人民의 組織인『西班牙政府 救援隊』는 二十四日 大會를 開催하얏다는 幹部를 選出하고 다음西班牙共和國 大統領아자니아 首相가베리로 兩氏에 對하야 激勵電報를 送致할件을 可決하고 그다음 勞働組合委員、美術學校 學生專總硏究所硏究員、聯邦航空硏究 五千으로된 西班牙 攻防模擬戰을 行하야 氣勢를 보혓다

廿六日三省會議 一定結論에到達
川越大使와須磨總領事折衝
蔣氏出馬時까지中斷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外務省에서의 陸海外三省會議는 午後二時부터 五時까지 約三時間에 亘하야 旣報한바와 가티將來 豫想되는 各種最惡의境遇에 對하야 意見交換을 行하야 三者意見의 結論에 到達하야 中國側의 態度를 監視할點으로만 되엇는데 中國側電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交涉의 正面에 서기를 不肯코 行政院副院長 孔祥熙氏에게 全權을 付與하야 折衝의 任에 當코저하는데 外務當局은 右는 全權許容에 藉口한 責任回避고 不滿의 意를 表明하고잇다 中國側은 形式上總理인 林森氏도 잇스나 內外政治의 重大問題는 蔣介石氏의 決定하는바임으로 日本政府는 實權者蔣介石氏의 出馬를 要求하는것인데 南京에歸京치안는것은 그一事로써 事態를 認識치못하는 不誠意임을 알수잇다 그리고 外務當局은 二十五日有田外相으로부터 許駐日中國大使에도 正式蔣介石氏의出馬를 求하고잇서 近近 何等의回答이 잇슬것으로 期待하는대 然後에 日本의 態度를 表明할方針이다 假使 孔副院長을 交涉에 當케한대도 果然 最後的諾否의 決裁를 할 責任이許與되어잇는가가 疑問이며 交涉만의 全權이라면 張外交部長도 同樣으로 一切 廣東의 蔣介石指令을 맛는것임은 明白한事實로 現下緊迫한 事態의 解決에는 全혀無力하다 孔祥熙氏가 起用되는境遇 日本政府는 一次 最後的決裁의 全權이許與되여 잇는가를 嚴重確認하고 萬若不然한때에는 交涉의 必要업다고 斷乎拒否하고 蔣介石氏에對하야 出馬할것을要求할 그時期를 明示하라고할것인데 그래도 涉滯될때에는 期限付로 그期日을 通告하라는强硬方針으로 나가서

蔣介石氏自身이 日中交涉에出馬

【南京廿六日發同盟】國民政府는 廿六日附로써 軍政部長 何應欽氏를 軍事委員會委員長 廣州行營主任에 命하얏다。右는 何應欽氏로하야금 西南方面의 軍事處理에 當케하고 蔣介石氏는 彼와 交替하야 南京에 歸還하야 日中交涉에 當할 準備로 보이는데 蔣氏의 歸京은 二三日中에 決定될 模樣이다。

對滿移民補助額
集團移民一戶當千圓
自由移民에게는五百圓

【東京電話同盟】昭和十二年度以降 個年計劃은 目下大藏省과의 間에 交涉中에잇스나 移民一戶當 補助金은 兩省間에서 交涉을거듭한結果 大體로 다음의 方針으로 具體案을 作成하기로 決定하얏다

一、集團民 平均家族三人의 計算으로 一戶當一千圓의 補助金을 支給하기로되엿는데 一戶一千圓中 移民移住費 被衣食等을 包含하야 指導員補助等의 使用은 따로 計上한다
二、農業自由移民에는 五百圓을 補助하야 集團移民의 附近에 移住하는者 半農半林을 目的으로 所謂林業移民도 이中에 包含키로하며 鐵道保護를 目的으로하는 二十乃至三十戶程度의것으로 部落을 結成하는 自警村도 이農業自由移民에너허서 自警의 敎育等公共施設은 鐵路局에 負擔시킬 方針이다
三、其他自由移民에는 二百圓을 補助한다 이것은 主로 農村能力不足을 補充하는것으로 未成年者를 中心으로하는 徒弟라고도 말할것으로 渡航費로 二百圓을 給하야 適齡에 達하야 獨立으로 一家를 構하는 境遇에는 集團移民 又는 農業自由移民으로 待遇한다 그리고 商工徒弟도 이에 編入할 計劃이다

芳澤元外相
米國務省을訪問

【華盛頓二十五日發同盟】元佛印 芳澤謙吉氏는 二十五日華盛頓에 到着한以來 米國政府當局과 接觸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二十五日午後 훌國務省 極東部長 其他國務省幹部를 會見하고 同夜는 中國公使館 晚餐招待의 歡迎晚餐會에 出席하엿다 芳澤氏는 二十八日까지 華盛頓에 滯在하고 同日午後 紐育에 赴하야 三十日出帆의 노르만데號로 歐羅巴에 向할豫定이다

人事‧集會

▲吳鳳彬氏(朝鮮美術館主)美術界視察次二十八日東京方面向發

日曜氣配

◇期米=天候不明인 이때 今回의 政府拂下成績을보고 古米에 對한 軟派의 期待不適中으로 當限은 高値模樣。氣配는 當限 三十錢 乃至 五十錢高 先限은 十錢 乃至 二十錢高唱이다。
◇株式=佛國政府의 平價切下와 和蘭政府의 金輸出禁止等에 加하야 中國問題도 더욱 惡化되는 模樣으로 氣配는 軟弱。

大新	七一、一〇
東新	一三五、五〇
鐘紡	一七二、〇〇
日產	七九、一〇

八一鈴

◇最後까지 버티든 金本位의 陣營을 佛蘭西마자 버리고 退却을斷行。
◇平價切下、紙幣濫發의 潮水가 世界市場에 氾濫할形勢。
◇西班牙의大統領 叛軍의 進擊에못 이기어 外國軍艦에 避難을要請。
◇이것이 事實이라면、聯盟總會의말성거리가 速히 解消되지아니할지。
◇英外相이 國際政局은 二大陣營으로 分裂될兆朕이確實하니 新平和處理案을세워야하겟다고。
◇居中斡旋도조치만은 말만으로떠들時期는 지낫것갓소、정말 平和를 渴望하거든 大英帝國의 行動 움뵈이는것이 若何오

今日本紙四面

最新發賣 박가구리ー무 박가해지마수 박가가루분 박가포마ー드 박가유 本舖 京城 電話光化門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綢緞綿布都散賣商

不老長壽 强壯强精 九龍虫 支那宮廷에서三千年間이나秘服하여온『산홍은』의九龍虫肺病神經痛心臟病等에神効하다 三生醫院 京城府黃金町一丁目四五

最高의社會‧意氣잇는大事業進路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大阪港區市岡 株式會社

肋膜炎 꼭낫는다! 濟世堂藥房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振替京城二一二九九番

朝報業界 各道分所長招聘 太平生命京城支社 李進學

中央時報社 支局募集 京城府林町八二番地

女子 販賣係五名採用

齒科醫院讓渡 京城驛附近

印刷 讓渡하겟습니다 京城竹添町二丁目一〇 株式會社 西海公論社印刷部

國旗‧會旗 校旗‧優勝旗 宣傳用旗幟專門 附屬品一式 上田旗店 大阪市東區本町五丁目

命中正確 彈力强大 空氣銃 常盤銃砲店 大阪市南區

朝鮮向漁網全般 國旗印線染 漁業用具製造卸直賣 成尾商店 大阪市西區

蓄音器製作卸 ドーコレ 小林蓄音器 大阪市東區

食料玩具 小物玩具卸問屋 筑紫屋商店 大阪市東區

ワイシャツ

冬物商品 HANE-KOMORI 和田シャツ製造所 大阪市東區神崎町

カラー

ナオル齒磨 使用하시요 ロート商會 大阪市

문등병 電球內에花が咲く 花大發明 特許 電球內に花が咲く 製作所 尼崎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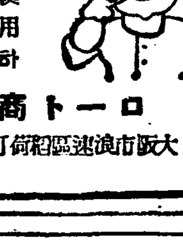
趙膏藥 腫症仙藥 效能 ○모든창부스럼 ○모든 종기 ○유종 ○담종 ○다결니는데 ○발찌 ○구창 ○낙상 ○어혈 ○견비 ○요통기관모명 ○종독증 價業 二十五錢 三十錢 全鮮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鍾路 本鋪 天一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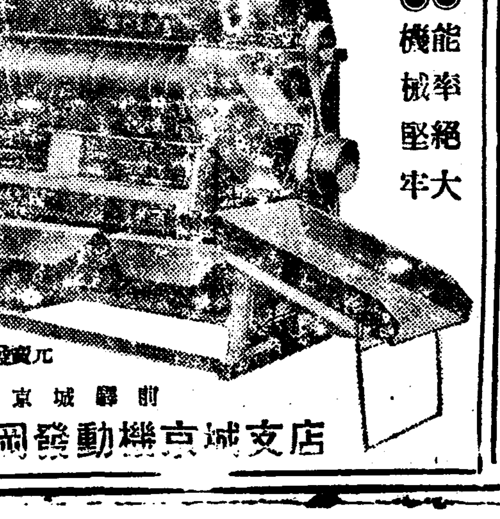
朝鮮理想號 新發賣品 機穀脫用力動一마ー얌 稻麥兼用 ●能率絕大 ●機械堅牢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好職業 男女學生不問 博文社

天然眞石玉眼鏡 國產의唯一 眼力의保眼 永久히不變 天然眞石玉 支榮堂磨玉房 主 朴日成

朝陽紡織女工募集 朝陽紡織株式會社





江陵·三陟또水亂

非常警鍾을亂打 住民避難의騷動

南大川과五十川의增水로 暴雨는尙今도繼續!

【江陵支局特電】전번수해를입은 재지강릉(江陵)에는 이십륙일부터 또다시 줄기찬비가 내리기 시작하야 이십칠일 오전세시 현재일백사십□미리」의 우량에 달하엿다 남대천(南大川)의 수위도삼미돌을넘어서 곳 위험수위에 달할형세이다 현재의 남대천 제방은전번수해후에 겨우 흙섬으로써 응급적시설을 하엿슬뿐으로 방수력이업서 결궤될수밧게업다 당국에서는 위험이각각으로 절박함으로 비상「싸이렌」을 울려서전읍민의 피난을 재촉하야 발서례배당공회당 보통학교에 수용된 피난민이 일천오백명에 달하엿다 대정정(大正町)욱정(旭町) 옥천정(玉川町) 림정(林町) 금정(錦町)등은 발서팔백호이상이 침수하엿다 비는아직도 맹렬히 계속되고 잇는데 이번피해는 전번에 못지안흘것갓다

【三陟支局特電】이십륙일부터오는비는 강풍과함께 맹렬히 쏘다저서 오십천(五十川)은 발서 삼미돌이나 증수되고 시내는두자이상 증수되여 집한채는 떠내려갓다 시민은 수방단、소방단과 협력하야 속속공회당 례배당으로 피란중인데 방금도대단위험한지경이다

水位降下 危險은僅免

電信電話線이不通 各地와의交通杜絶

【江陵支局特電】이십륙일 밤에도 호우는계속하야 남대천(南大川)의수위는 점점높어가서 위험수위에 각가운 삼메돌을넘에달하야 뚝이곳터질념려가 잇다는 현장감시원의통지는 이천여명의 피난민의가슴을 서늘케 하엿다 경찰서수방단 소방조원 등의필사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뚝은터지지 안하엿스나 피난민들은 공포의하로밤을 새웟다 새벽부터 비는꺼끔하여지며 수위도내리기시작하야 피난민들도 그제야안심하고 자긔집으로 도려가는사람이 만혓다 다행히 강릉교아래쪽이 전번수해로말미암아 뚝이터젓기때문에물이 잘빠저서 강릉읍내 침수는 상하에까지 끄처서 그다지 심하지안하엿다 강릉군옥계(玉溪)에도 각관공서를비롯하야 이백여호가 침수되야 보통학교에 주민을 피난식히고 면사무소에서 밥을지어 배부 구제중이다 그리고 강릉을중심으로 각처로가는 교통은 전연 두절되고 전신선일부외에는 전화선까지 불통된곳이만타

인숙(李仁淑)집에 동거하는 리기춘(李基春)이라는 열여섯살먹은 처녀는 시내 옥천정(玉川町)칠십사번지 길우에서 시내 교남정(橋南町) 일백륙십삼번지 인력거부 박명수(朴明秀)(二○)가 끄을고 가든인력거에 바치여 한자다섯치가량되는내(川)에 떠러저서 갈비뼈에 사오일동안 치료받을상처를 입엇다 부근사람들과 협력하야 끄러올렷는데쌍방이 서로아롤 잘보지안코 반대방향에서 거러가고 오다가바치게된것이라한다

清雲公普의 婦人會發起

부내 청운공립보통학교(清雲公普)에서는 지난 이십오일에 그학교 생도들의 어머니나 아주머니 누이들을 망라하여 「우리들자신부터 수양을 촉진하고 지식을 계발하자」는취지로 「청운부인회」(清雲婦人會)를 발긔햇는데 그것이조직된뒤에는 회원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강연회、강습회、영화회、사회견학、친목회등 여러가지유익한 모임을 때때로 주최하리라한다。 그리고 회원이되기를 원하는분은 오는이십구일까지그학교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朴大烈에게 無期懲役

平壤覆審法院의判決

【平壤】조선〇〇운동이 가장맹렬하든 대정구년□□일 오후 여덟시삼십분경 평남도청에 폭탄을 투척하여 청사의일부를파괴한 광복단(光復團)결사대원 박종식(朴鍾植)일명박대렬(朴大烈)에대한 대정팔년제령위반 살인 강도 방화피고사건의 제이심판결은 이십륙일오후 평양복심법원 경(鏡)재판장으로 부터 무긔(無期)를언도햇는데 일심판결은 십이년이엇든만큼 피고와 방청인을 자못놀나게햇고 피고는즉시상고할모양이다

假醫生被逮

【開城】부내원정(元町)륙백구십구번지 김봉운(金奉雲)방에 묵고잇는 오준광(吳俊光)(二六)은 의생의 면허도업시 지난 이십삼일 오후 여섯시경 개풍군 진봉면 탄동리(炭洞里) □□□의 처 정을봉(丁乙奉)이 중병에신음함을 기회로 한대에 이십전식밧고 「동친」(□□)한대를 노아준바 그후 동면주재소원에게 발각되여 침술도구 일체를 압수하는동시 개성서로 압송되여 엄조한끄테 십오원의 과료에처분을 당하엿다한다

金化郡內의 一面一校制祝賀

【金化】김화군교육회에서는 지난이십일일 김화공보교에서 군내일면일교완성 일주년 기념식

災地同胞에게 피땀흘린품삯을

東洋工業社職工의美事 義金을本報支局에寄託

【開城】재지에서 방황하는리재민들이 지금쯤은 얼마나 치우며 얼마나 배고프랴──이처럼 측은히 생각하는것은 오히려배저린군중들에게서 일어남을 보는한바 부내북본정(北本町) 동양공업사(東洋工業社) 직공일동역시 한푼두푼모아 그들의하로품삯을 희사하야 재지동포에게 보내기로 의론한바、지난이십오일 이십삼원사십오전의성금을모아가지고본지국에 □□하엿다

不良한店員

强盜虛僞告發

【開城】때는지난이십일일 오전 아홉시경─부내 남본정(南本町) 파출소에는 나히한 사십가량되여보히는 중년한명이 피투성이가된 의복을그대로입은채 황급히 달려와서 자기는지금 부외 정교면덕암리(府外靑郊面德岩里) 동정거리(□□□)호젓한 논둑길을걸어오다가 돌연사인조 강도에게 엽습을당하야 소지금 칠원을 전부 강탈당하엿다하며 지갑을 꺼내기에 찌저진 조끼쪽떡을 내보힘으로 이를보고 경한 본서에서는 아연 실색하야 때를 노힐세라하고 피해당한 현장에 달려가 쉬지지시 □□를해보앗다、그러나 전혀 딴에도적과 차운흔적을 찻을수업슴으로 이것이허위강도나 아닌가의심한 경찰은 전기피해자를 인치하고 □□한 취조를 거듭한결과 사실그것이 허위강도고 그는 □□리(□□)이 백이십번지에 사는 원득(元□□)(二□)이란자로 평소에 주색에빠저 사기수단이 능하든중 이번도 자기주인인 박모(朴某)의상(床)맛든 회원을바다가지고오다 전부소비해버리자 그외 업을한수작으로 위조□□어먹고 오히려내미는놈도 경찰과 주인을 속이려든것이라 한다

城內洞婦人動員 堤防復舊完成

【大邱】지난날조선일대의 큰피해를 끼친 전대미문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남기거니와 이에따라 각지방마다 피해지가 고 도처에 경북영덕군 영해면성내동(盈德郡寧海面城內洞)압 내동 이어니다 의 전답을 휩쓸어버려 수십정보 방이 백여간이 절귀도여서 허에 갓치이도어서 동민들도 거이 구공사를 할힘조차업서시 이러 기하고잇섯든바 성내동부인 오 십여명이 궐기하여 지난 십삼 일부터 전기제방복구공사를 시작하여 이제완전히 그공사를 준공하엿다는바 근대녀성에큰교훈을 준것이라하야 일반의 칭찬이자자하다고한다

나날이 바게하야 □□□□그때도가 눈에□□하여 항상 이웃주어다 고 술만마시고 돌아하는동 세상을비관하다가 드듸여 지난 이십오일 오전구시반경 집안사람 이모르게 뒷산에올너가서 한끼 목을매어 주머니끈으로 목을 매고 그와가티 세상을떠낫다고 한다。

水魔의觸手는 江原道全域에

蔚珍邑에는二百四十戶浸水 外金剛에도被害多大

【警務局着電】이십륙일아침부터 나린비는 이십칠일 아침까지에 일백사십미리나 내리어 전자에 처참한피해를 보앗든전도에 다시수란이 겹치어 피해도 상당히 만흔모양이고 따라서 인심은 다시불안에빠진모양이다

▲통천군(通川郡)관내는 우량이 일백사십구미리로 일대의하천이 대범람하여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에는 패천(沛川) 벽양(碧養)간의 제방이결괴되여 일부불통이되엇고

▲고성군(高城郡)관내는 외금강(外金剛)에서온정리(溫井里)간은 전자의수해에 파괴되엿든자리에 다시 가설하엿든 가교(假橋)가 류실되여 직통하지못하게되엿고、기타부근일대에는 그동안임시복구개수하엿든 도로 제방 교량등에도손해가 적지안흔모양이다

▲삼척군(三陟郡)에는 오십천(五十川)의증수로 삼십호의 침수가잇섯고

▲울진읍(蔚珍邑)내에는 이백사십호의침수가잇서 피난민들은 그곳학교등에 피난하엿고 인명의피해만은 업는터이라하며

▲린제군(麟蹄郡)내에도 비가 만히내리어 하천의 범람이만혀 교통두절된곳이 만흐며

▲양양군(襄陽郡)에도 피해가 잇슬모양이나 양양、린제간、고성(高城)회양(淮陽)간교통이 두절되고 전화가불통되여 상세한것은 알수업다

▲강릉읍(江陵邑)에는 남대천의증수로 일천여호나 침수하여 대소동을 일으켯다 피난민들은 대개 피난하엿스나 전자의 참혹한수해를 겪근뒤라 인심의동요가 큰모양이며 옥계면(玉溪面)에는 시장하천의 범람으로 사십호나 류실되엿고 전화도불통되여 상세한것은 알수업는상태에잇다

咸北全道에亘하야 一大近代戰展開

來月의師團과旅團의演習 鈴木師團長이統監

【羅南】제십구사단(第十九師團)의추계대연습(秋期大演習)은오는 시월삼일부터 십오일까지 려단연습(旅團演習)과 사단연습(師團演習)에나노어 실시한다는바 그중 보병삼십칠려단(步兵三十七旅團)은 성진(城津)을 중심으로 가납(加納)려단장 통감하에 일일부터 팔일까지에 시행하고 동기한내에 제삼십팔려단(第二十八旅團)은 회령(會寧)을중심으로 전중(田中)려단장통감하에 행하고 려단연습이 끗나는대로 구일부터 십오일까지는 령목사단장(鈴木師團長)통감하에 사단연습을 시행하리라는바 연습에는 다수의 긔계화부대(機械化部隊)와 비행대(飛行隊)가출동하야 대규모의 근대전(近代戰)이전개되리라한다

處女落傷

이십륙일오후여섯시에 시내천연정(天然町)일백십번지리

米廛을노리는 夜賊들이跳梁

廿七日曉山手町、桃花町兩處에 現金盜難事件이發生

차차 겨울철이 가까워오면서 시내에는 벌서부터 려염집 가가집들을 노리는 못도적들이 날뛰고잇서 일반의 관심을 끄을고잇는중 이십칠일 새벽에는──

【1】……부내 산수정(山手町)칠십구번지 함명선(咸明善)(五□)씨의 싸전에 오전두시반가량되여 어떤자가 담장을 넘어 드러가서 가가방에 노혀잇는 금고속에서 그전날 판 시재 이백이십이원을 교묘하게 훔처갓고。

【2】……가튼 오전세시반때되여서는 도화정(桃花町)사번지의 오십륙호 김원택(金元澤)(五七)씨의 미전에도 역시 어떤자가판장뒤ㅅ담을 넘어드러가서 궤짝속에 드러잇든 현금 백사십원을 감쪽가티 꺼내가바렷다。 그래서 이 두가지 도난계출을 연거퍼바든 룡산서에서는 가튼자의 소위로 인정하고 이것을 경찰부에 보고하는 한편범인들을 련락체포하기에 활동을 하는중이다。

三長對岸에 共軍이出現

部落民五名을拉去

【羅南】함북경찰부 입전에 의하면 추수긔를 압둔 국경지방의 물정은 날로 소연하야 ×록히 삼장(三長)부근 대안에 무장공군(武裝共軍)과 토병의 출몰이 자못 심하다는바 지난 이십삼일 오후 여덟시쯤 대안덕화사신흥동(德化社新興洞)부근에 무장공군 정모(鄭某)일당 이십일명이 침입하야 밧헤서 일하고 잇든 부락민 다섯명을 랍치하여 가지고 갓다는데 그중에는 녀자도 한명석겨 인심이 자못 흉흉하다는바 이급보를받은 삼장서에서는 맹렬히 그행방을 추격중이라한다

三週夜間停電

大田電氣에非難

【忠州】지난 팔월부터 간간이 정전하든 대전전긔는 지난이십일오전 십시경부터 원동기의고장으로 정전되엿다는바 삼주야가 지나도록 복구되지안허 대단한 불편을늣기는동시에 일반의 비난이 놉다한다

古跡의都·平壤에 考古學者가集中

大城山麓古墳에서發掘된 白骨은斯界에珍貴한資料!

【平壤】고구려의 찬연한문화를 지하에 담북감초아가지고 잇는 평양에서는 고고학연구의 가을을마지하여 사계의 권위자들이 대성산록(大城山麓)에 모혀들어 고분군을 발굴중이다 지금까지 세개를 발굴햇스나 도굴(盜掘)을당한뒤이라 수확이 업섯고 다만 백골(白骨)이 나타낫는데 이백골이 고구려고분의 주인이지 추후사람의 백골인지 알수업서 목하감정중으로 만일 이것이 고구려시대의 고분이라하면 실로 귀중한발굴이 아니라할수업서 감정의결과를주목하고잇다 그런데 작금에는 동대명예교수 흑판(黑板)박사를 필두로 경대 빈전(濱田)박사 매원(梅原)조교수등 사계의명사들이 속속집중하고잇서 세계고고학자의 시청을 끄을고잇다

回甲宴飮食物에 卅餘名中毒騷動

其中一名은그翌日에遂絶命

【長城】전남장성군북일면 박산리(長城郡北一面泊山里) 조영환(趙永煥)의처의 회갑날이 지난 이십이일인대 동연회의 음식을 먹은 남녀삼십여명이 중독되여 인사불성에 빠진사람도 잇슬뿐아니라 동리변동휘(邊東輝)(□)는 회갑연의이일인 이십사일에 드듸여 사망하엿다는데 의사의말을들으면 저육(猪肉)의 중독이라하야 일반의주의를 거듭하는중이며 그외에 위독한자도수명이나잇다고한다

長城郡下에 생긴慘變

七十老人自殺

曾孫女死別悲觀

【北鎭】애상의 가을—운산북진(雲山北鎭)에는 또다시 염세자살사건이 이러낫다 이번은죽어 업서진 어린증손녀의 귀여운정을못니저 목매여죽은 칠십로인─운산군북진면교동(校洞)거주의 박용빈(朴用彬)(七□)이란 로인은 슬하에 자손도 수다하거니와 하로하로의생활에 커다란고통이업시지나와섯는데 제일귀여워하든 어린증손녀가 영숙(永淑)(三)이가 죽은이후

全朝鮮團體柔道

基靑主催·本社後援 十月十七日에開催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八回全朝鮮團體柔道大會는 十月十七日午後二時부터 鍾路靑年會運動室에서 擧行할터인바 諸般規定과 綱領은다음과 갓다

◇參加規定

一、參加資格 學校及私設道場等 永續性이有한團體로그資格은本會에서決定함

一、人員及選手 人員은各團體五名式(候補二人)으로參加할團體에서認定한者(段外者에限함)

一、勝負의方法點取(本大會審判規則에依함)

一、申請期日 十月十六日午後三時까지

一、抽籤日時 十月十六日午後八時

一、申請及抽籤場所 本會館內

◇綱領

一、本大會는 柔道의技能을向上케하며 柔道의根本精神을發揮함

一、本大會는 朝鮮柔道界에團體優勝을決定함

一、本大會는 最優勝團體에게本會에서 製定한優勝旗를授與함

一、右優勝旗는 次會大會까지保管하엿다가返還함

◇競技規定

一、審判은 最終으로함(審判에對한것은審判會에서決定함)

二、本大會의試合時間은五分間으로하되 大將은七分間으로함

三、勝負는「單板」(一本)으로만決定하고 「折半」(技有)은 一人에게 限하야 有效함 萬若雙方에서 代表者一名式選拔하야 比賽者로 勝負를決할때까지試合케하되 一合의時間은 七分間으로함

但延長戰은 三回에 限하며 三回에勝負를 決치못할時에는 審判及審査員의投票로 此를決定함

四、本大會의審判用語는左와如함 「메여치기」「누르기」「조르기」「꺽기」「한판」「절반」「비인」「조우스」「면비인」「고만」

五、試合順序는抽籤順에依함

六、抽籤의結果 相對가 無한 團體는 勝者로함

七、團體總拔은 勿論이어니와 個人으로도 總拔은 一切不許함

八、本大會에서 指定한 時間內에 出場치아니한 團은 棄權으로 認定함 但 審判員及 相對方의 承諾을 得한 時는 此限에 不在함

九、本大會의 綱領規定及 審判의 命令에違反하는 時는 退場을 命하는 事도 有함

十、本規定에 記載치아니한 事項은 慣例와 審判官의 決議에 依함

五選手京城到着은 來月七日頃에

孫、南兩君은豫定보다도늣게 同月七日에長崎到着

伯林올림픽大會에 出場하야 奮鬪한 金容植 李性求 張利鎭 金□□의五選手는 日本選手와 올림픽代表本隊와함께 歸國途上에잇는바 豫定보다 닥서 十月二日 神戶入港、三日午前七時半 東京에 到着하야 當日에 열리는 歡迎報告會에 臨하엿다가 京城에는 十月七日頃에 歸着할 豫定이다 그리고 마라손의 覇者 孫基禎君과 南昇龍君은 伊太利汽船 콘테롯소號에 乘船하야 歸途에 오른바 船便의 故障으로

京畿道中等陸上

養正張君投砲丸新記錄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三回 京畿道男子中等校對抗陸上競技大會는 二十七日 午前十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前年度優勝校 養正高普를 비롯하야 龍中 開商 二高 京商 仁商、一高 京工 京師等 九個校가 參加한가운데 열리어 養正高普로부터 優勝旗及第二位의 第二高普로부터 優勝盃를 返還한다음 參加選手一同을 代表하야 養正主將金克煥君의 宣誓及朝鮮式으로 入場式을마치고 時間關係로 컨디순이못不良한가운데 競技의幕은 열린바 夕刊마감까지의 各種競技成績은 다음과갓다

【百米豫選】A組1北野(京工)一二秒四 2金克煥(養正)一二秒八 3中村(仁商) B組1內田(龍中)一二秒三 2馬鍾國(養正)一一秒二 3劉秉吉(京工) C組1崔相弼(仁商)一二秒三 2平野(京師)一四秒 D組1李景羲(養正)一二秒 2李鍾奭(仁商)一二秒 3佐川(京商)

【二百米豫選】A組1北野(京工)三五秒一 2金克煥(養正)三五秒五 3中村(仁商) B組1佐川(京商) 2洪聖祖(開商) C組內田(龍中)二五秒五 2李愚永(養正)二五秒六 D組1李景羲(養正)二五秒三 2李鍾奭(仁商)二六秒三 3劉東吉(京工)

【四百米豫選】A組1高圭復(養正)五九秒四 2牧鼎(龍中)3李載衡(一高) B組1孔聖魯(開商)五八秒四 2韓仲範(養正)五九秒一 C組1李愚永(養正)一分三秒二 D組1李景羲(養正)一分一九秒四 2桂(仁商)一分二〇秒八 3河原(龍中)

【八百米決勝】1洪顯文(二高)二分九秒 2牧鼎(龍中)二分九秒四 3金鍾植(養正) 4韓龍善(養正) 5齋藤(龍中)

【千五百米決勝】1金麟鎭(二高)四分三七秒四 2金鍾植(養正)四分三九秒六 3洪顯文(二高) 4金春亭(養正) 5梁在元(仁商)

【高障碍豫選】A組1北野(京工)二〇秒 2金激鎬(養正)二九秒七 B組1蘇鎭南(一高)一九秒四 2坂谷(仁商)二〇秒 C組1朴勳緖(仁商)二三秒一

【投砲丸決勝】1張聖麟(養正)一三米一三 2白承旭(養正)一二米八〇(以上本大會新記錄) 3馬鍾國(養正)一一米〇五 4姜永善(二高)一一米五一 5高世允(開商)一〇米二四

【走高跳決勝】1張聖麟(養正)一米六五 2蘇鎭南(一高)一米六〇 北野(京工) 根本(京商) 一米五〇 4馬鍾國(養正)金激鎬(養正)金東濼(開商)崔相弼(仁商)一米四五

【四百米決勝】1高圭復(養正)五五秒八 2李景羲(養正)五六秒三 3牧鼎(龍中) 4李愚永(養正) 5孔聖魯(開商)

【高障碍決勝】1蘇鎭南(一高)一七秒五 2北野(京工)一九秒 3朴勳緖(仁商) 4坂谷(仁商) 5金激鎬(養正)

運動界集會

◆伯林올림픽大會를 視察하고도라온 安正桂氏(陸聯理事)의歡迎會는 今二十九日午後五時半부터 淸凉寺에서 開催(會費一圓)

天氣予報

概況 朝鮮附近의 低氣壓은 群山附近과 鬱陵島近海에서 不連續으로 천천히 東進하고잇스며 高氣壓은 오호츠크海로부터 西伯利亞로 떠지고잇다 滿洲는 晴朗하고 中部는비가오시며 日本內地 처처에비가오시다

豫報 오늘밤은 京城地方은 흐리고 小雨가잇슬模樣이다 明日은흐렷다가개인다 京畿道全區도 가다

昨日最高 二三度四
同 最低 一六度五
今朝最低 一四度八
今日正午 一六度八

補血強壯劑 參茸トニク

學者의研究와興味의中心이되여잇는 鹿茸人蔘 陰羊藿의諸元素는「參茸トニク」에限하야 完全히飽和되여잇습니다

從來는 舶來品及廣告主義의強壯劑가 患者에게 果然 어느程度의治療效果를 보여주엇는가? 疑問입니다

時代의要求에依하야 產出한「參茸トニク」를 試用하시요 그神秘한作用、偉大한效果는「參茸トニク」만이 가지고잇는자랑입니다

實驗推奬
醫學博士 申弼雨先生
醫學博士 橋本吉藏先生
醫學博士 玉書彬先生
醫學博士 尹致衡先生
醫學博士 李世珪先生
醫學博士 姜日永先生
藥學士 鄭逢涉先生

主治
虛弱腺病質之人、貧血及萎黃症之人、手術後貧血之人、陰萎早漏夢泄等之人生殖器衰弱之人、神經衰弱之人、虛弱姙娠、產後衰弱之人、病後衰弱之人、一般子宮病及ヒステリー之婦人、消化機能不良之人、食慾不振之人、肺結核、腺病乳兒發育不振之小兒、健忘早老之人、眼精疲勞心臟衰弱、心悸亢進重病後耳鳴、二日醉。

類似名이잇슴니다「參茸トニク」를記憶하시요
百貨店、有名藥店에잇슴니다

包裝	
250G 半月分	¥2.80
500G 一個月分	¥5.00

(文獻試供品無代進品)

京城鍾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電話光二一三五
振替京城一九〇七
慈善堂光化門二四

곱부를거꾸로드러도 안쏘다지는이치

재미잇는이실험 여러분도해보시오

박 재 식

여려분 고무풍선을 날려보섯스면 아시겟지만 끈아풀을때면 공중으로 훨훨날르지요? 그이치를 아십니까? 물론 고무풍선속에는 공긔보담도 더 가벼운수소가 하나 갓득 차잇습니다 그럼으로 날르는것이지마는 아모리 가볍기로 그러케 날을수가잇나요? 그러니까 고무 풍선이 그러케 날른다는것은 우리가살고잇는 공긔에 압력이라고하는 눌르는힘이잇는때문입니다

그중거를 들터이니 이대로시험을해보시면 재미잇게 알수가 잇는일이지마는 이세상에 무슨 물건이든지 움직이고 날고 떠러지는것이 모다 우리눈에 보이지안는 공긔속에 눌느는힘이 엇는때문입니다。

자―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하나해봅시다。우선 유리곱부에다가 물을 찰찰넘도록 담어노코 엽서로 곱게덥흔뒤에 격구로 드러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물이 쏘다지지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공긔의 눌느는힘이 미튼바치고잇는때문입니다。미테서만 바치는것이아니라 실상 아레 우할것업시 사방에서 눌느기는 하나 우에서 누르는힘이 미테서 바치는 힘보다 약한때문 입니다。그러니까우에서 말한바와가티 고무풍선이 날르는것도 속이 원체가벼운때문에 공긔에 떠바처서올라가는것입니다。

또한가지 말슴하겟습니다。여러분 홍차나 『소ー다』스물가튼것을 마실때 버리스집호로 빠려보지안헛습니까? 그때에 버리스집속으로 물이 빨려올나오는것도 역시 그이치입니다。말하자면 곱부에 담겨잇는 물을 공긔가 놀느는힘은 다갓습니다 그러데다가버리스집속에잇는 공긔가 빨려올라가는데 따라서그속에는 놀느는 공긔의 힘이부족함으로 곱부에서 눌니는힘을 이기지못해서 버리스집속으로빼려라나가는것입니다。

또하나 시험해보시오 대야에다가 양초를 세워서 불을붓처노코 물을 양초뿌리가 무칠만콤 부은뒤에 곱부로 초ㅅ불을 눌려덥허버리면 초ㅅ불이 꺼지는 동시에 대야에잇든 물이곱부ㅅ속으로 약간 빨려드러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초ㅅ불때문에 곱부ㅅ속에는 산소가 말으고 따라서 공긔가 열버진때문에 대야ㅅ물을 눌러는힘은 강하고 곱부ㅅ속물을 눌리는힘은 약해진때문입니다 이러한것은 여러분이 즉접 시험물 해보시면 더욱 재미도나고 알기도쉬운것입니다 (사진은물담은곱부를 거꾸로 드러도 물이쏘다지지안는것)

『너의들 중에서 네가 자고서 일어 난 이부자리를 네손으로 치우는 애가 메치나 되느냐。』 이러케 물으면 네하고 대답하는 아히가 아마 열에서 두셋박게 안될 것이다。그나머지는 어머니나 누님이 개어 주시거나 하인이 개어 주고 잇다。『너의들 중에서 네가 먹고 난 밥상을 네손으로 치우는 아이가 메치나 되느냐。』

이러케 물으면 네하고 대답할 아히가 아마 하나도 업슬 것이다。모도다 밥은 제가 먹ㄱ 상은 남시키어 치우고 잇다。

그러나 사람이란 제가 할 일은 언제나 제손으로 하여야 한다。병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케 하는 것이 떳떳한 노릇이다。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뢰할 마음이 잇서서는 못 쓴다。어데까지 스스로 서서 스스로 나아갈 용긔를 길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려서부터 대소사간에 버릇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내일부터라도 그러케 행해 보는게 어떠켓니。

기게처럼맨든사람

말도하고 심부름도한다

인조인간(人造人間) 기게이가할수업고 이라고도합니다 맨든사람입니다 우리들처럼사람의몸은『답배진』이니 『함수탄소』니 『질분』이니 『마베슘』이니하는것의 열여섯가지 원소(元素)로되어잇다합니다 그러면 이 열여섯가지 원소를 모아가지고 사람을맨들수잇느냐하면 맨들수잇다고말할수잇스나 지금의우리네재조로는 도저히미치지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케는

말리쇠를가지고 기게처럼맨드러 거러도다니고 말도하고하는 기게사람을 만들게된 것입니다

이기게사람을 『로보트』라고도 한니다 이로보트라는 기게사람을 제일몬저만드러내기는 지금부터팔백전 미국의어느전긔회사기사입니다 그후로 여러나라에서 떠사람과근사하게맨들라고 연구를해서 점점더그럴듯하게되어왓스며 지금도 연구하는사람이만캐되엇습니다

사진에보이는 『로보트』는 이 『리차ー드』라는사람이 맨든것인데 영국 『리차ー드』씨가 시키는일은 무엇이든지 한답니다。여러사람아페나서서 연설도하고 거러도다니고 고개도끄떡거리고……그러니 이기게를놀리는데는 전긔로놀리게됩니다。따라서로보트의 몸속에는 전긔ㅅ줄이뻣쳐잇고 몸통을해잇고、말하기위한 라디오와가튼장치 몸을놀리기위한긔계장치가 시게속보다 더복잡하게 되어잇슬것은 빤한일입니다

童話

멧두기의 고기잡이

李 元 文

어느날 개미와 멧둑이와 황새가 한자리에 모여 안저서놀게되엿습니다。이때에 점잔코우멍한 황새가 하는 말이

『자! 우리가 노름을 그냥하면 재미가 업스니 무슨 내기를 하는게어떤가?』 하니까 까불거리는 개아미와우둔한 멧둑이도 조타고 찬성하엿습니다 그러니까황새가 또하는말이

『그러면 우리 다른내기는할것이업고 맨처음에 지는놈은개울에가서 고기를 잡어오고 그담에 지는놈은 나무를해다가잡아온 고기를끄려서이긴놈을대접하기로하세!』 하니까 또개미와 멧둑이는

『그것조타!』하고 찬성하엿습니다 그래서 셋이도라안저 서루정을하는데 맨처음에멧둑이가저서 할수업시 개울로 물고기를 잡으러가게되고 그담에는 개미한테 황새가 지고는 나무를 하러가게되고 개미 혼자서 조와라고 따뜻한 양지쪽에놀고 잇섯습니다

그런데 멧둑이란놈이 개울ㅅ가로 고기를 잡으려간다고 가기는갓스나 물에드러가서고기를 잡을수는 업섯습니다。그러나 못잡아가지고가면 황새의 긴주둥이에 찍히고 개아미한테 둘닙지도 모르겟스니 그냥도망갈수도업고 아모리생각을해도 욜구만 섯구 생각이 잘안도랏 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울물속이 드려다보고십퍼서 개울여페섯는 큰수양버드나무로 올라가서 개울물위에 처느러진 가지 끄트마리에 나려가 부터서 맑고 기픈물속을 나려다보고잇섯습니다

그때에 엇던것을 차저단이는 크고적은물고기때는 꼬리를 취휘두루며 버드나무미틀 오르나리다가 그중 큰고기가 언동을가까히 늘어진 수양버들가지 끄트마리에 붙저한 멧둑이가 매달린것을 보고

『이게 웬떡이냐?』 하는듯이 날새게 떠들처뛰여올라서 멧둑이를 씹지도 안코 통채로 꿀꺽 삼켜버렷습니다。정신업시 한가하게노는 물고기만 드려다보고잇든 멧둑이는 뜻밧게도 고기배속으로 드러가고마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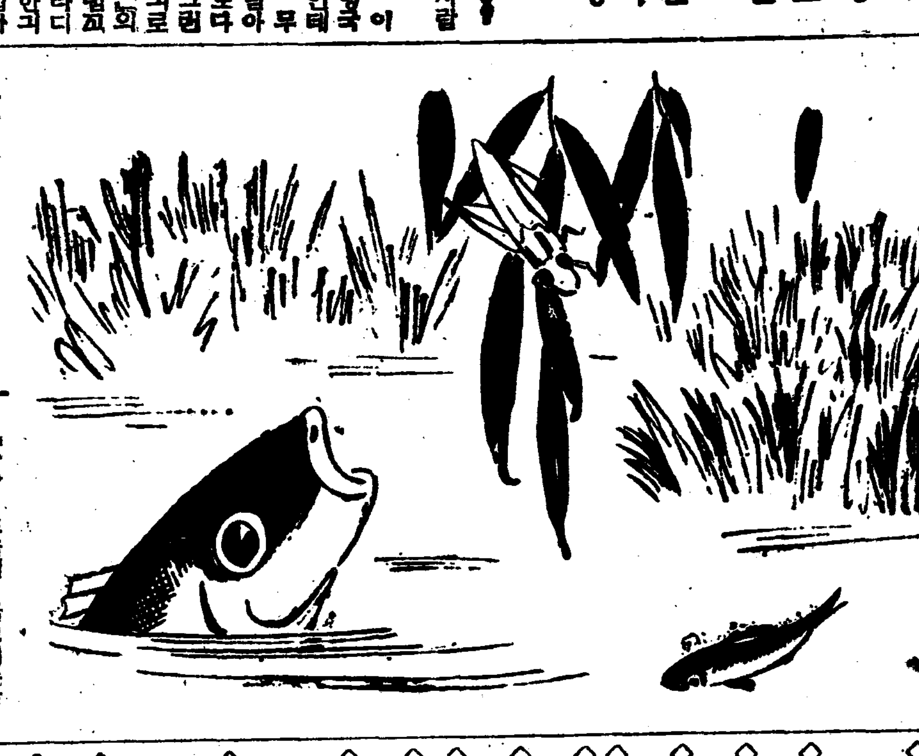
이때에 다리가 길고 기운이조흔 황새는 어청어청단이며 나무를 잔뜩해다노코는 멧둑이가 고기를잡아올때만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나중엔 골이나서 개울가으로 멧둑이를 차즈러나갓습니다 갱변에가서 멧둑이를 암만차저단여야 어듸로 갓는지 보이지안코해서 끌이더나가지고 맨나기만하면 분푸리를 하리라하고는 버드나무미테가서 우둑허니 안저서 두리번 거리다가 큰 고기한마리가 꼬리를 툭툭치며 지나가는것을보고 긴주둥이로 그만 톡쪼아물고 개미잇는 곳으로 와버렷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잇다가 물어습니다。

『아! 멧둑이란놈은 어듸가서 안오고 자네가 잡어가지고 왓나?응?』

『하하 고놈이 물고기는잡울수업고 그냥올래면 우리가 무서우니까 아마 도망갓나부데 고놈은 나중에만 나거든 혼을 내줍십잡고우선잡아온고기나 배를 갈라서 지저먹세!』

하고 황새가 그기ー노주둥이끄트로 고기배를 톡쪼아 가르니까 이것보게 도망간줄 아랏든 멧둑이가 고기배속에서 깡창뛰여나왓습니다。이것을본 개미는 하도 우서워서 어찌나 우섯든지 허리가 잘룩해지고 황새는 하도 엄청나서 고개를 좌우로 내흔들다가 모가지가느러나서 기러지고 멧둑이는 답답한 고기배속에 드러가잇다가 무른이마에딸이흐르는것을 뒤로씻다가이마가 뒤로 재겨젓습니다。

―끗―



만화 개공지

金湘旭

童詩

씨갑씨

똑딱하게 얼엇든 땅도 햇살이포군ー하여지니까 땅속에서 꼰히잣자든 씨갑씨들이 하나 둘 깨이기시작하엿습니다。깜장씨도잇고 동그잡잡한 씨도잇고 노르스룸한 씨도잇습니다。

『애 저봐라。종달이소리、종달이의노래가 들리지안니? 어서 일어들나거라。포릇 포릇한 저고리들을입고 봄구경나오라고 종달새가부르는것갓다。』 노르스룸한씨는말하엿습니다。

『동그잡잡한 씨갑씨 조그만애기야。너는 이담에크면은 무슨꽃이될라니? 나는 우리어머니가 하얀 양귀비꽃이니까 나는 하얀양귀비꽃이된단다。그래치만 나는 빨간꽃이좃트라。참 너두애 양귀비꽃이되라무나。』

『아이 그러치만 우리아버지는 해바래기니까 나도 해바래기지 뭐니』 하고 동그잡잡한씨는 대답하엿습니다。

『오ー라 더 이러케적어도 새첩이나면 올라러처롬 커지는구나。그럼 네가 커ー드래지면 나는 무척섭섭하겟다。그러치만 나한테 놀러오나봐 꼴벌이 보고 너한테도 놀러가구이야기하마。』

『잘 고맙다。잘자라라』

『잘자라라』 하고 씨갑씨들은 외조훈 인사를하고 헤여젓습니다。

吳 章 煥

二十七日(日曜)

◇午後六時 兒童劇『沈淸』全三景 指揮 百合어린이會 金順禎 効果 効果班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懸賞라듸오小說發表(三等當選)『종소리』 崔琴桐作 沈影
◇同八時三五分 名曲의밤 一、『稚花』二節 二、『알르하이 멜베르히』中一節 三、『暴風雨』中一節 指揮 申同左人
―나오는人物― 宋在善 梁世浩 沈玉庚 金春植 李春峰 朴之燾 白銀鄉 効果 宋
◇同九時五分 音律『靑山去』 朝鮮正樂傳習所
◇同一〇時 朝鮮放送 ―京城으로부터―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中獄中歌 李業香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後六時(名)이야기 大町

二十八日(月曜)

◇午後〇時五分 歌詞 一、春眠曲 二、竹枝詞 金眞紅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主婦에게 必要한科學知識 養正高普 崔在緖
◇同三時一〇分 (東)歌舞의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徐椿
◇同七時三十分 常識講座 總督府事務官 姜元秀
◇同八時 바이올린獨奏 一、소나타E長調……헨델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 第二〃 알레그로 第三〃 라ー르고 第四〃 알레그로 二、가、자장가……하우센作曲 나、루ー메……베하作曲 다、베니스의뱃노래……멘델스존作曲 라、밤……슈베르트作曲 마、追憶……드르돌라作曲 피아노伴奏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박타령 鼓手 韓成俊
◇同九時 映畵이야기『아름다운野獸』 成東鎬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英語講座 豐谷榮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高增外男
◇午後〇時五分 箏曲 中島雅樂部
◇同六時 DK어린이이야기會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高田太一
◇同八時 (大)漫才 一輪亭花蝶 三遊亭川柳
◇同八時二〇分 (東)義太夫 竹本剣太夫
◇同八時四五分 (東)謠曲
◇同八時五五分 (東)라듸오小說 山本嘉次郞 演出
◇同七時三〇分 (大)뉴ー스演藝
◇同七時五五分 (東)所作音樂 紅葉狩
◇同八時四〇分 (東)歌謠曲 伊藤久男
◇同九時 (東)라듸오小說

二十九日(火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滄浪歌 二、唱劇調…赤壁歌 鄭弗鏞 鼓手 姜萬秀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病人의看護에對하야 崔仁秉
◇同六時 合唱 一、나물캐는처녀…金亨俊作曲 二、샘물근처……카나다民謠 三、두기조회요……日本民謠 四、자장가………金亨俊作曲 五、군인의대장단……루ー드作曲 六、우리집은배한척……러시아民謠 七、숨바질………丁抹民謠 八、아름다운꼿이여…中國民謠 貞信女普校合唱隊 指揮 金亨俊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講演 日常生活에必要한法律몃가지 金檉
◇同八時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絃樂 鳳凰吟(樂器)牙箏、奚琴、唐笛 二、管樂 金殿樂(樂器)觱篥、大笒、奚琴、唐笛、杖鼓、座鼓 李王職雅樂部員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李圭甫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梧桐秋夜…全壽麟作曲 二、고달픈身勢…同 三、二八靑春…同 四、갈대꼿…同 五、酒店의밤 六、沙漠의나그네…羅素雲作曲 …松平信博作曲 伴奏DK管絃團
◇同九時 時調 一、時調 二、遊山歌 三、제비歌 四、執杖歌 五、달거리 李飛鳳 張彩瓊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佛語講座(四)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新海公
◇午後零時五分 (東)新宮劇 劇民衆
◇同一時 常識講座 岸勇一
◇同六時 (大)連續童話劇 B・K고도모서클
◇同六時二五分 講座 菊池直次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服部一雄
◇同八時 (大)라듸오、드라마 岡田嘉子
◇同八時四〇分 (仙)國浮瑠璃 鈴木士羊龍
◇同九時 (東)라듸오小說 演出 山本嘉次郞

曆 九月廿八日(月) ・陰丁酉八月小(十三日) 癸丑・木・危・定
◇祭祀移徙裁衣動土上樑巳時納財에宜함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부루ー스愛用家 中村芳子孃 自宅化粧室에서

新流行의 목의美粧料

목덜미의 化粧에는 부루ー스를

中村芳子

◆목덜미의化粧은여러化粧과달라서 엔마조흔것을쓰지안흐면 意外自己가보면서化粧할수업는곳은 퍽근심이됩니다、나는부루ー스를使用하고잇지만그것은勿論 거울도必要가업슬程度입니다、아름답게되는것은勿論 小量으로도 實로잘먹고滿足하여집니다、自然으로斷然부루ー스 를推奬합니다

ブルース

(水ルモン金有)

推奬할수잇는다섯가지理由!
◆絕對로白粉下가不必要한스피ー드白粉
◆使用量은在來白粉의半分
◆化粧이밀리지안코얼룩이지지안는다
◆高級지리니옴이 藝朝臺에 配合
◆濃淡은마음대로ー化粧水로물에ー水白粉이되며 피重寶이다、

白色・日本 벨인분에
肌色・一般婦人에
黃色・洋裝洋髮인분에

全國百貨店藥店、化粧品雜貨店에잇다

定價 一・〇〇

試用瓶 呈送 二錢郵手三枚封入하야申込하시는분에게 試用瓶進呈

東洋總發賣元 テイユーカーパンニー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振替大阪八四三二五番

九月二十五日부터 大公開 每日三回 一回 正午十二時半 二回 夜 七時三十分 大勝軍 필스・비다ー氏監督 西部活劇 아리소니안 리차드・떽스氏主演 西部野原無法律開拓地에活躍하는 西部侠客時代에강크暴大爭鬪 竹瀨田名物興太者映畵『홀차운드』 巨匠野村浩將氏監督 現代喜活劇 興太者と小町娘 興太者三銃士 磯野秋雄氏 阿部正三郞氏 三井秀男氏主演 上山草人氏 坪內美子孃 大日方傳氏共演 喜活劇 空中自動車 파레社作品無聲映畵短篇 鍾路五丁目 電光一一三番 第一劇場

9月26日ヨリ9月27日まで(二日間) 河合ダンス 躍進日本の先驅者! 明朗!撥刺女の亂舞! 26日(土曜)午後七時ヨリ(夜間一回) 27日(日曜)午後一時ヨリ(晝間)二回 午後七時ヨリ(夜間) 永樂町 電二〇〇番 中央舘

9月23日より9月30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中田絹代主演 せめて今宵を	11・30	2・55	7・10
滿鐵情報部製作 熱河	12・34	4・00	8・15
獨逸ウフア特作 ジヤンダーク	1・30	4・58	9・14

入場料金 浪花館

九月廿四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판다ー크 메트로社超特作映畵 안제리、지프스、우스키監督 同題의大雄篇 暗黑한中世紀에태여난絶世奇蹟의少女의悲壯하고도아름답든그生涯 ◇대우파社超特作映畵 大空의驚異 新時代의流行兒쿠라ー아다의世界最初의出演 ◆新興キネマ超特作映畵 悲哀嵐の道 主演 鈴木澄子 尾上菊五郞 近頃의大傑作 女性悲話 法地獄 百萬合中、無 九月二十七日낫부터!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 낫一時 밤七時半 ◇우나이데드社超特作日本版 大名篇 紅はこべ 全八卷 主演……레스리하워ー드氏 ◇우나이데드社超特作日本版 豪華版 雨 全十一卷 主演……존클포ー드孃 監督……루이스마일스톤氏 團成社

大都映畵社超特作現代劇 無茶苦茶戀愛大將 ハヤブサ・ヒデト氏 ……主演 次週 ー가시뎌블나요 麻浦桃花町 電龍 光化劇場

慶南道內水陸稻作 百六十萬石減豫想

稀有의風水災와天候不調로 比前年四割五分激減

【釜山】지난번의 대홍수해로 경상남도내의 농작물피해가 이천구백여만원에 달한다함은 긔보한바이거니와 도산업과에서는 그후 각군을독려하야 수륙도(水陸稻)피해급 발육상태에 대하야 상세이조사를 하던바 지난이십륙일에 그조사가 완료하얏는데 조사결과에의하면 소화십년도 실수확고 이백사십칠만 오백륙십칠석에비하야 약사할오분인 일백륙십칠만여석의 대감수를 예상케되어 일반사십만 농민들의 생도가 우려된다하며 그피해예상고 면적별은 다음과같다

水稻

被害面積	一六,四六一町三反
三分作以下	五,四〇一町三反
五分作以下	一〇,四八一町六反
八分作以下	三五,一五六町二反
八分作以上	五六,一九六町一

陸稻

被害面積	三,三六一町八反
三分作以下	二九八町一反
五分作以下	四八六町五反
八分作以下	四〇九町
八分作以上	一九一町四反

和信百貨店員熱誠

【大阪】뎡자인조사정부(鐘南遞三丁目)에잇는 화신백화점 대판사무소(和信百貨店大阪出張所)에서는 그간 구제품 모집사원들은 다수한 구제품을 본보지국에 의뢰하는동시에 상회한 구제품을 발송하엿는데 대하야는 축항(築港)에 까지 갓다 수송하야 주엇스며 당지 항구(港區)에 잇는 나가이서회사(長井商會)에서는 이역시 자진하야서 지난십팔일에 무임(無賃)으로 인천항(仁川港)까지 수송하야 주는데대하야는 두회사 사원들의 지극한 열성이 더하야 일반은 이에 감동하고잇다한다

서평양자구단(平壤)리여북 오찬호조(李浩哲 吳慶浩組)가 녀자부에서는 호수돈(好壽敦)의 배남득 왕순임조(裵南得 王順姙組)가 승리하엿다 결국에는 남자부에

스포츠界豪華版 第六回綜合體育大會

各部에二百餘選手의 參戰으로 空前盛況裡에 終幕

【平壤】"스포츠"전당의대호화판 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주최와본사 평양지국후원으로 이십륙일오후령시부터 평양공설"그라운드"에서 개최되엿든 제륙회조합체육대회는 공전의 대성황으로 진행되엿섯다 벽두참가선수 이백여명의장엄한입장식이 열리어 대회장조만식(曺晩植)씨의 정중한 개회사 작년대회의 우승단

▲女子中等籠球 開城好壽敦女高普▲女子中等排球 正義女高普▲女子中等庭球 正義女高普▲男子中等陸上 光成高普▲男子中等籠球 崇實中學▲男子排球 光成高普

의우승긔, 우승배 반환식이 잇섯고 정의녀고보 주장 황덕인(黃德仁)양의 선서문랑독이잇슨후 각부에난호여 장쾌한경긔가 개시되엿다

각선수는 스포츠스피릿 미려서 그리고 세계무대를 목표로 최후순간까지 싸와서 놀나운주활약을나기강조을마치엇다 이날의 우승자는 륙상과배구에 광성고보(光成高普)이련련패를하엿고 롱구에는 숭실중학(崇實中學)이 이련간 련승햇스며 녀자배구에는 정의녀고보(正義女高普)가 녀자롱구에는 원래의 호수돈녀고보(好壽敦女高普)가역시

◇寫眞 右로부터 入場式 好壽敦女高軍(籠球) 平庭球俱軍(個人庭球) 光成軍(陸上) 左 崇中軍(籠球) 好壽敦女高軍(籠球) 光成軍(排球)의 各優勝選手

……의 ……을 휘몰라치고 각기영예의 우승을 ……하고 우승긔와우승배 우승메달을 수여하엿는데 …… 시작햇스나 …… 부회장 …… 관서체육회 만세삼창으로 원만히 식을맛초앗다 이날의 빗나는 전적은 다음과갓다

◇陸上競技部—中等部—

▲百米決勝 一着 金海奐(光高)十一秒一 二着 韓雲涉(崇商)十一秒二 三着 金昌守(崇商)

▲二百米決勝 一着 盧鍾鉉(崇商)二四秒一 二着 韓雲涉(崇商)二五秒 三着 李[illegible](光高)

▲四百米決勝 一着 盧鍾鉉(崇商)五五秒九 二着 李明鉉(光高)一分[illegible] 三着 千錫[illegible](崇商)

▲八百米決勝 一着 朴基鐸(光高)二分二四秒 二着 尹泳擧(光高)二分二五秒 三着 崔尙俊(崇商)

▲千五百米決勝 一着 朴基鐸(光高)四分四九 二着 尹泳擧(光高)四分五四 三着 吉濟永(崇商)

▲五千米決勝 一着 尹泳擧(光高)十九分四一 二着 金東鎭(光高)十九分四七秒一 三着 李龍八(光高)

▲走幅跳決勝 一等 羅絅成(光高)六米二十六 二等 李東淳(光高) 三等 池殷奭(光高)

▲走高跳決勝 一等 羅絅成(光高)一米八〇 二等 李東淳(光高)一米五〇 三等 韓炳杰(光高)

▲三段跳決勝 一等 羅絅成(光高)十三米九一 二等 池殷奭(光高)十一米六〇 三等 李吉洲(崇商)七十一米五六

▲圓盤投決勝 一等 李明鉉(光高)三〇米六〇 二等 金承模(光高)二三米六 三等 盧鍾鉉(崇商)

▲砲丸投決勝 一等 李明鉉(光高)十一米七 二等 朴泳喬(光高)九米五〇 三等 李吉洲(崇商)

▲槍投決勝 一等 金頊浩(光高)三六米二〇 二等 金承模(光高)三五米十二 三等 金顯鳳(光高)

▲四百米리레이決勝 一着 光成高普 四八秒 二着 崇仁商業

▲八百米리레이決勝 一着 光成高普 一分四〇 二着 崇仁商業

◇陸上競技(一般部決勝)

▲百米決勝 一着 金敬式 十一秒九 二着 金炳玉 十三秒二 三着 金恩植

▲二百米決勝 一着 文顯柱 二四秒八 二着 金炳玉 二七秒一 三着 金能涉

▲四百米決勝 一着 安寶献 五八秒九 二着 韓致雲 三着 栗成八

▲八百米決勝 一着 洪正煥 二分二十秒 二着 金光涉 三着 金德實

▲千五百米決勝 一着 洪正煥 四分三〇 二着 金德實 三着 金德淳

▲五千米決勝 一着 金德淳 十六分四五 二着 金德實 三着 洪正煥

▲走幅跳決勝 一着 黃大峰 六米五〇 二着 山下 六米三一 三着 金敬式

▲走高跳決勝 一着 黃大峰 一米七五 二着 山下 一米七〇 三着 金炳玉

▲三段跳決勝 一等 黃大峰 十三米九七 二等 文顯柱 十一米七二

▲圓盤投決勝 一等 朴基業 二四米五二 二等 金善玉 一八米三〇

▲砲丸投決勝 一等 朴基業 一一米五〇 二等 金善玉 七米五五

▲槍投決勝 一等 朴基業 四三米四〇 二等 朴洪錫 三六米

◇男子中等排球決勝

光高 3（一セット21—14 二セット21—18 三セット13—21 四セット21—12）1 崇商

◇男子中等籠球決勝 崇實中學이優勝

崇中 45（前 18 27 後 14 25）39 光高

崇中		光高
金日成	RF	邊君讓
洪淳興	LF	盧元鍵
吳壽哲	C	韓炳杰
吳重烈	RG	姜義廷
尹重鎬	LG	尹永哲

◇女子中等排球決勝 正義A組優勝

正義(A組)不戰勝 正義(B組)

◇女子中等籠球

好壽敦女高普(不戰勝)

◇男子庭球

▲準決勝戰 平庭(李源穆 吳燦浩)四—一 平庭(韓成春 李鍾驩) 專醫(金東烈 金鳳梧)四—一 平庭(金泰植 李鍾淳)

▲決勝戰 平庭(李源穆 吳燦浩)四—三 專醫(金東烈 金鳳梧)

◇女子庭球

▲準決勝戰 崇義(李春順 元璧漢)○—四 好高(秦南得 王順姙) 好高(李蘭英 孔珠英)○—四 崇義(韓汝英 李貞淑)

▲決勝戰 好高(秦南得 王順姙組)三—一 崇義(韓汝英 李貞淑)

元山府民의救濟熱 赤誠!衣類三千點

現金도四百四十圓을爭先義捐 本報元山支局에寄託

【元山】하로밥사이에 먹고입고 잘 의식주를 모진수마에 빼앗기고 지금생사의기로에서서 긔한에떨고잇는 백만의리재형제를 잇는힘을다해보자는 거룩한취지이들어오자 원산시민은 정성과순정을기우려 의복과현금을 본사원산지국에 긔탁하여온다함은 수시보도하는 바어니와 지난이십륙일까지 본지국에서 접수한 수해의연금품은 의류가 삼천이백오십구점에 현금이 사백사십원이실바 그중 의류 삼백사십이점은 원산상공회의소를 거처 강원도 재지로 보내고이천이백오십팔점은 본지국에서직접 강릉(江陵)과 양양(襄陽)에 이미 발송하엿는데 남어지 륙백오십구점도 이달안으로 재지로발송할작정이며 현금은 일, 이,삼회에 이백구십원구전을본사로 보내는바 남어지도 오날로 발송할작정이다

三百園兒集合 綜合園遊會盛況

【宜川】선천시부교사단주최 제일회 유치원 원유회는 예정한대로 지난 이십오일 오전구시 명신학교(明信學校)운동장에서개최되엿다 걱정되든 날세도 말끔게 개이여 명랑한 아츰 햇빗이 비치이는 가운데 각기 원긔(園旗)를 선두로 삼백여명의 원아 입장식이 잇섯고 회장의 개회사가잇슨다음 공동"라지오"체조가잇슨후 나여아기자기한 경기는 시작되엿다 자그의 귀여운 자녀들의고훈 몸짓과 아름다운 노래소리를감상하려고 모여드는관중은 무려삼천으로 헤아게되여 명신운동장에는 때아닌 사람물결이 넘실거리엿다 가을날 아름다운해볏아래 나븨춤추는듯한 어린원아들의 훈련에 숙련을가한 묘기는 일반관중을 련광케하엿스며 더욱히 원아 삼륜차(三輪車)경주와 역락(亦樂)유치원의 자유률동(自由律動)의 두가지종목와 쾌미(快美)진미(眞美)는 삼천관중의 박수 갈채를 박엇고 마즈막으로 삼원 대표 행운(幸運)상맛치기 제비뽑기를 하야 명신(明信)유치원이 당선되여 깁븐 상품 수여식이 잇슨후 오후오시원만폐회하얏다

黃海商圈의關門 猪島連絡을促進

鎭南浦港民의要望

【鎭南浦】진남포발전상중요한안으로 되여잇든 평남산업도로(産業道路)의 포장이 명년도부터착착실현케되는이때 또다시 진남포경제계의중요한관계를 맷고잇는 대안황해도상권의관문인 저도(猪島)와의 련락 설비완성 요망의 여론이 대두되고잇다 현재진남포와 저도간의 교통상황을 보면 도선장의설비가 극히불완전하여 일기가다소라도 불순할때는 래왕이 심히위험한상태이나 날마다 교통과운수등은 격증하여가는형편인데 저도와해주사이에 도로개수가 완성되면진남포와해주간에도 경제교통이 개시될것임으로 진남포와 저도의련락선의완성남도로의 연장으로서 해주진남포 평양을서로 련락케하는중요경제도로가되는것임으로 조선경제계의 중요성을 갓게되는이만치 진남포가 가장중요지대를점령할것이라고해서 일반은 산업도로의 실현과 한가지로 대안황해도와의 교통시설이 완성되기를요망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問題의元山市內道 路面鋪裝을試驗

結果보아續行豫定

【元山】도시로서 행세한지이미 오래인원산은 상금도 근대도시의 면목을 갓추지못하고잇슴은 보보에 루루히 보도하는바어니와 그중에도 도로의포장 근대개화도시로서의 제일조건이라 칭하는원산도로는 아직도 그녯날의 로면을갓고잇서 개항오십유여년의 력사를가진 원산으로서는적지안은불명예가 안일수업다고한다 그러나 노쇄한 원산항에도이근대문화도로의 출현을 돕는유리한조건이 허여되엿스니그것은 조선석유회사 원산공장의건설이그것이라는데 원산부에서는 그공장에서 제조하는 포장용재인『베지』의 공급을 바뎌 금년부터 원산부의전에서 대흥교를지나 환방회관(丸芳會館)까지간의 포장을 시행하기위하야 그간준비에 분망중이더니 수일전부터는 긔술직공을 다려다가 실지로 이포장공사에 착수하얏다 그런데 이번공사에 조흔성적을엇는다면 매년측구공사(側溝工事)금 포장공사비로서 책머한예산을 계상하야 불원적도로포장용사용할방향이라고한다

今(廿八日)夜 午後七時 宜川劇場에서

三南水害救濟의밤

演出種目 一、音樂獨奏 一、獨唱 一、保聲코러스 一、合唱 一、喜劇數種 一、正劇一種 一、其外數種

主催 宜川新聞記者團

地方人事

▲[illegible]([illegible])…三[illegible]([illegible] 李貞淑)

▲山本[illegible]十氏([illegible]金融組合理事) 新任人事次 本社[illegible]支局來訪

▲鄭基鉉氏([illegible]) [illegible]

本町에서 [illegible]人事次 本社[illegible]支局來訪

▲平南大同郡[illegible]校生徒六十三名 校長[illegible]氏引率로 二十四日來着 本社[illegible]支局來訪

▲[illegible]氏(上[illegible]) 新任人事次 本報扶安支局來訪

愛慾의彼岸 【112】

李光洙 作 金康穆 畫

강선생은 배바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오 이게 배바위로군。옛날분명배바위야。동해의 선인들이이바위를 바라보고서 방향을 정한다는 바위다。나도 인생에방향을 잃은 사람。어, 참 운무도심하다。」

「해빗조차 뚤치못한다는 운무의 어두움은 내 마음에 거깃줄 모르는 번뇌와도 가타라」

「자작지얼이다。내가 거길가。곳잘 갈아안젓던 마음을 무엇하려 다시 흔들어 노렌데。가자 유점사로 갈까。마하연으로 갈까。아아송화강이그리웁다。소리어시 흘러가는 송화강의 흐르는 모여드는 벌판,푸。장안사로가자。도로오정리로 갈까。그래도 안돌아서는 발걸음 무어에 끌려서 빙빙 도는것처럼。이래서될수잇나? 가자」

하고 배바위에서 뛰어나린다。

이러는 동안에 혜련은 마치 몸이 바위에부터버린드시 꼼작아니하고 강선생의 말을 듯고잇섯다。호흡과 순환이다 그친사람 모양으로。

「선생님!」

하。그래。혜련이를 다시 한번보랴는 마음이 모든번뇌의 근원이란 말야。애초에 조선에를 무엇하려와。안보리라 결심은하면서도 그래도 발이 조선으로 끌려서。서울도 그냥 지나오던 마음이 무엇하려 원산에를가? 아모리하여도 죽여버리지아니하면 아니될 사랑을」

하고 강선생은 자긔가 지은 시한구절을읊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드시 나는 내 내사랑을 죽엿노라 이삭은 다시 살아낫서라마는 영영 죽어버린 새 사랑이어!

아아 내손에 들린 피 무든 칼이어!』

그리고는 강선생은 잠깐 고개를 숙엿다가,

「이 아픔!그것은 칼로 글거버린 자옥의 아픔이다。마치다리를 잘라버린 사람이 얼마스동안은 아직도 그다리가 남아잇는것가티 감각하는 모양으로 나도칼로 잘라버린 혜련의 자리를 글는것이다。인제 낫겟지。모든것은 무상이니까。인제낫겟지。」

하고는 [illegible] 글

「잇는것은 다 숨어질지어다。산것은 죽을지어다。우주와 함께 이마음이 허공이 될지어다」

하고 나서는,

언제 것칠지도 모르는 이운。것치라면 경각에 것칠는수 잇지만。인제는 혜가 며줄

하고 혜련은 뛰어나왓다。

「아 혜련이!」

강은 눈을 크게떳다。

「선생님!」

혜련의 가슴은 새 가슴모양으로 발락거렷다。

「어떠케 여길와서 밝기도전에?」

「혹시나 선생님을 뵈올까 하고。그도 못하면 해뜨는것이라도볼까하고새벽에나섯서요」

「그래 여태껏 어디 잇섯서?」

「이 바위 미테。선생님이 오시는것을 이 바위미테 숨어잇섯어요。」

「여긔? 그럼 내가 중얼거리는 말을 다 들엇겟네?」

「네」

하고 혜련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다 들엇서?」

하고 강은 죄지은 사람 모양으로 고개를 숙인다。그리고 한참이나 잠잠하다。

「선생님!」

혜련이가 한 걸음 강에게로 가까이 온다。

「응」

강은 가까스로 고개를 든다。생도가 아니오 평등의 한 사람인것을 느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혼자 하시는 말슴을 다 들엇서요。그리고。깃벗서요——가슴이 터지도록。깃벗서요」

혜련은 고개를 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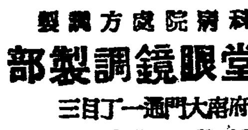
素の味 모도노아지 (登錄商標)

맛이 一等 우리엄마 가아지노모도치고 맨든음식은 맛이一等이지오 그래서 조곰냉겨지 안코 다 먹습니다

爭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機械完備擴張記念서—비쓰

親力不足으로落誤말아 親力正確한明學堂으로



各眼科病院處方調製 明學堂眼鏡調製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三 (鍾路四街里) 電本局②五八一九・振京一七二五六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特許出願中 專賣

空氣銃部 農具部 綿打機部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部區別) 専門製作特約店募集

綿打機 製繩機 製叺機 稻扱機

綿打機 此機는新案特許品인데한번두르면三回式回轉되어在來式보다三倍以上打綿함

空氣銃 此銃은發射音이無하고空氣作用으로發射하므로反動이無하고空氣作圧力이有함으로百發百中이여서果樹栽培者는絶對必要함

製繩機 農家의副業熟이날로더해가는此時의製繩이잘되고故障이絶無한此機를使用하시오

製叺機 此機는新考案改良品으로精密한構造로製造하엿슴으로堅固하고輕快함

稻扱機 此機는在來品의缺點을改良하얏슴으로實用的이優秀天下一品

朝鮮黃海道載寧驛前通 合名會社 利善工場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八六番

カメヤ旗店 旗 京城黃金町五丁目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宣傳旗 幟

恩給 長期確底漲立替他에比較하야最利信用은解散하고特色各照會回答의 京城府長恩町一六〇 鄭商會

純國產

口臭를除去하고 齒牙의淸掃作用을하고 咀嚼에依해서唾液의分泌를促進하고 消化를도으며 씹어서齒齦을 健全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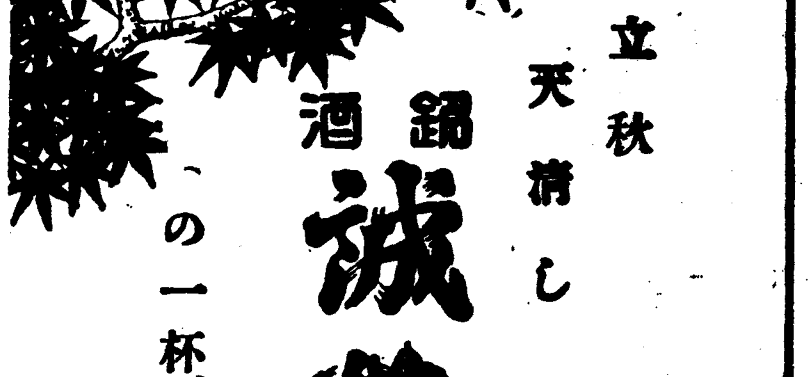
十ケ入一函 五錢 五ケ入 二錢 お子様向 一錢

名古屋市中區北立町一丁目 合名會社 伊藤製菓所

今のチウインガム를 씹으시면 今のガム

Maruima kokusan gamu

立秋 天清し 銘酒 誠鶴 の一杯、氣朗か



トヲリマス美味い味に實にトンホ

釀造元 深見酒造場